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1500여명 참석 성황리에 개최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5월 6일 10시 수도 서울 한강잠원지구에서 권해욱 대회회장, 권영익 상임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영호 전국지역총연합회장, 권영상 부회장(변호사), 권성동 국회의원(법사위원장),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 권경성 전 의원, 권은희 전 의원 등 1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전날 저녁부터 그칠 줄 모르고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릉, 경주, 광주, 능곡, 담양, 대구, 대전, 문경, 봉화, 부산, 산청, 상주, 서울, 서울금천, 시흥, 안강, 안동, 안양, 영덕, 영주, 영천, 예천, 원주, 울산, 의성, 음성, 제천, 장원, 청송, 청주, 합천 등 31개 지역 축선들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서 권승일 부회장이 한춘화 부인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1부 행사에서는 게그맨 김학도와 가수 이지영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권승호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30년 전 우리의

분향 운동에서 4개 팀으로 출발한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해 참가팀이 늘고 전국 각지의 100만 축선의 많은 협찬과 지지와 격려 덕분에 31개 청장년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부성 준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비가 오는데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체육대회 참석하신 것을 100만 축선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100만 권문의 명예와 위상을 천만 서울 시민에게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뭉쳐 새기자"고 말했다.

권해욱 회장은 축사에서 "존경하는 100만 축선 여러분 새벽부터 천리 길을 멀다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석하신 청장년 회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또한 멀리 일본에서 오신 권승일 회장님, 오늘이 유서 깊은 수도 서울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랑스러운 안동권씨 100만 축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제30주년 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 함께 환영하

는 바이다.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하신 서울 청장년회 권승호 회장과 권부성 준비위원장, 특히 권순용 사무국장은 공직자로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문중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 그리고 관계되신 모든 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성대히 화려하게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축선 여러분! 저는 오늘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동권씨 대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다가고 있다. 여러 가지 보고드릴 일도 있고 부탁드릴 말씀도 많습디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권올장군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이순신 장군과 같이 정부행사로 격상시키는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끝나지 화합하고 단합해 모두가 승자가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많은 추억들을 간직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내년에는 부산에서 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권해욱 대회회장



권승호 대회장



권부성 준비위원장

축사에 가름한다"고 말했다.

권영상 능곡회 초대회장은 안동권문의 영원한 분향인 안동에서 1989.4.23. 4개 지역 청장년회가 참가해 역사적인 체육대회의 광과리가 울리게 됐다고 그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회의원(법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30회를 맞은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100만 축선의 화합과 명문거족의 단합 덕분에 3선 동권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단결된 힘을 과시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권오을 전 의원과 권영호 전국지역총연합회장단협의회 회장 및 권영성 전국청장년회장단협의회 회장의 축사를 마치고 권승호 대회장은 권공식 담양총친회장과 권승일 일본 제일교포 축선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제2부 축하공연에서는 원로 코미디언 원일과 방일수의 사회로 가수 신수나의 안동권문의 노래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개그맨 김학도가 좌중을 웃기며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가창했다. 이어서 가수 이지영의 노래와 우리 가락을 덧붙여지게 부른 민오 3인방이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7명의 안동여고 동문들이 박자에 맞춰 멋진 댄스를 선보이자 모두를 단상 앞으로 달려 나가 흥을 함께 풀었다. 가수 설빈은 바지를 걷어 부치고 무대 밑으로 내려와 질퍽거리는 운동장에서 축선들과 한 바탕 춤을 추었다. 아이돌 그룹 스마일의 깜직한 공연, 가수 장민, 가수 장계현, 미녀와 야수의 순서가 이어졌다. 제2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기도 안동권문 축선들의 마음을 이는 지 그 사이에 비는 그쳐 있었다.

제3부 레크레이션에서는 진동민의 사회로 훌라후프 돌리기 시합, 제기차기, 박 터트리기, 전국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축선들이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였다.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주최 측에서 준비한 푸짐한 상품

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행사의 마지막 폐회식은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됐다. 영광의 1등에는 권영호 회장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새벽 3시 30분에 부산을 출발해서 7시 20여분에 행사장에 도착한 부산팀이 차지했다. 2등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단합된 힘을 보여준 안양팀이 차지했고, 권태복 회장이 이끄는 금천팀은 3위에 올랐다. 내년 대회는 항구도시 부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는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대회를 위해 서울청장년회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 때문에 축선들과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지만 주룩주룩 내리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한강잠원지구에 모인 축선들의 그 열정은 비마저도 어찌 못했다. 오히려 안동권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장이 됐으며 그 위상 또한 세계로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주최한 서울청장년회원들



1위 부산, 내년에는 부산입니다. 종친 여러분 많이 찾아주소 ~!!



권영성(변호사) 능곡회 초대회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권오준 현 능곡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단합된 힘을 과시한 안양팀이 2위를 차지했다.



끈끈한 조직력과 흥과 끼로 무장한 서울 금천팀 3위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창설 원년 멤버들과 함께 권영성(변호사) 안동권씨 능곡회 초대회장과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창설 주역인 안동권씨 능곡회(회장 권오준) 회원 그리고 대회 창립 원년 멤버들이 제30회를 맞은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회상하며 전국체육대회 창설 배경을 축선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1986년 8월 8일 안동지역 청장년 35명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안동권씨 능곡회는 그 초기에는 회원 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에 만족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상을 숭상하고 친목을 돈독히 하는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안동권문의 모듬이 돌이 되자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그런 즈음에 탄탄한 조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영주청년회가 주변부터 확대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마침내 안동과 그 주변 영주를 비롯한 4개 지역의 안동권씨 청장년들이 의기투합하여 1988년 4월 23일 안동권문의 영원한 분향인 안동 공설운동장에서 안동권씨 능곡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역사적인 안동권씨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전국청장년체육대회는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발돋움했다. 앞으로도 100만 안동권문은 체육대회를 발판으로 축선 간에 더 화합하고 더 단합하는 계기로 계속 발전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훌라후프를 잘 돌리는 지역별 대표자가 한영식 출전하여 훌라후프 돌리며 부딪히기 대회를 가졌다. 시흥 대표(왼쪽)와 능곡 대표가 평소에도 뛰어난 실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능곡대표와 아웃사이드로 주권을 뺏는 시흥대표의 불만한 시합이었다. 기세등등한 능곡대표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한 시흥대표가 결국 승리했다.



자자미를 던져 박 터트리기 게임을 했다. 박을 터트리자 흥부가 박을 타서 행운을 얻었는데 "권문의 위상을 세계로"라는 체육대회 모토와 함께 행운권이 쏟아져 나왔다. 날마다 행운이 쏟아지시길...



전미스터코리아 출신 이수희 미녀, 미녀와 야수



K-POP 아이돌 5인조 걸그룹 스마일의 깜찍한 공연



흥과 끼가 넘치는 울산팀!! 울산 축선들은 뽕과리와 장구와 징을 치면서 경기장이 들썩 들썩하게 흥겨운 한마당을 펼쳤다.



안동여고 동문들의 신나는 댄스, 동문끼리 취미로 했다지만 리듬에 발이 척척 맞는 것 보니 프로의 댄서...



뽕소리를 박자 삼아 흥겨운 우리가래에 맞춰 열~수



권올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
비가 오는데도 안동권문의 후예답게 권올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자는 서명운동에 여러 축선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흥흥한 미담 전국 31개 지역에서 운집한 안동권문 축선들은 각 고장의 인심과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축선들끼리 흥흥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 경주팀은 구수하고 걸쭉한 막걸리 한통씩을 전국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광주팀은 냉채만 팔아도 코골이 시큰코골이 흉어, 부산팀은 갖 떠 온 싱싱한 회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별미 중의 별미들이었다. 특히 한강 고수부지에서 먹는 경주 막걸리와 광주 흥어, 거기에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는 체육대회의 맛과 운치를 한층 더해 주었다.